

# 무주군, 토지·지적 최우수

(전북도 군부)

### ‘조상 땅 찾기 위치 서비스’ 추진으로… 주택·건축·도시재생 군부 ‘우수’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2017년 토지·지적관리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주택·건축·도시재생분야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토지·지적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조상 땅 찾기 위치 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올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119동을 정비해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주택·건축·도시재생업무 분야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던 이번 평가는 토지 및 지적공간정보, 또 건축분야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토지·지적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조상 땅 찾기 위치 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올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119동을 정비해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주택·건축·도시재생업무 분야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민원봉사과 최병현 과장은 “주민 편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2017년 토지·지적관리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에 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주민들의 편에 선 사업발

굴과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실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의회, 내년예산 3186억원 의결

###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259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졌다.



유승열 의장

특히, 이번에 의결된 2018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9억원 증가한 3,186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밀도 높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장 요구사항 62건, 처리 요구사항 93건, 건의사항 19건 등 군정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열 의장은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르게 아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

진안군은 18일 동향면 대량리 참촌마을에 위치한 구리 제련유적인 제동유적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의 복원기금으로 집행되는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지원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사비용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진안군 동향면 지역은 고려시대 특정 공납품을 생산했던 특수행정구역인 ‘동향소(銅鄕所)’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된 문헌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담양현 고적(古跡)조에 전하고 있다.

현재 유적이 위치한 대량리 참촌마을 조사지역에는 지표상에 구리 제련의 부산물인 슬래그 등이 다량 노출되어 있어 이번 실시되는 조사는 유적의 범위와 기초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다.

진안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는 물론 고대사회 구리 생산과 관련된 유적의 존재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철쭉회, 장학금 100만원 전달

진안군봉사단체인 철쭉회(회장 동창욱)는 18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철쭉회란, 15년 전 ‘봄에 활짝 피는 철쭉처럼 이웃과 향기롭게 더불어 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결성한 관내 봉사단체로 그동안 집수리 봉사, 소외계층에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

등 나눔 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동창욱 회장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위해 진안군이 추진하는 ‘진안사랑장학재단’ 사업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남대천변서 AI방역 실시

AI 유입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18일 무주읍 남대천변에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무주군은 무주농협 무인헬기 1대와 무진정축협 광역소독기 2대를 동원해 무주읍 취수장 경계에서 서면 금강경계까지 5km구간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으며 관련 공무원들과 농·축협 관계자 등 50여 명이 나서서 예찰활동을 펼쳤다.

군에 따르면 무주남대천은 현재 왜가리를 비롯한 쇠백로와 오리 등 철새 15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이날 방역은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 농업소독과 이은창 축산담당관은 “무주군에서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가금류 사육 현황 7농가 21만여 마리)에서는 현재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질병 상황실을 마련하고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변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비롯한 가금류 사육농가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자원순환 평가 전북도 ‘우수’

### 3년 연속 선정… 클린하우스 운영 등 높은 평가

진안군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한 2017년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실적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결과를 평가해 총 6개 시군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2015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도시사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진안군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를 증대를 위한 클린하우스 운영과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역점시책 등의 평가지표에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

았다.

그동안 진안군은 310개 전 마을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를 현재 138개 마을에 설치를 마쳤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슬레이트 지붕처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자원 수거처리 등 폐자원 회수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재활용품 회수율은 2014년부터 매년 50%가 증가된 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상패·포상금 600만원 받아

장수군은 2017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패와 포상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부처, 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평가 지표에 대해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장수군은 산림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매달 실적점검 및 부진지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해 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2017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패와 포상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